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학부 4학년생을 중심으로

권	관	관	열	하	정	희 [†]
한양대학교 상담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상담센터	한양대학교 / 교수				
특임연구원	특임교수					

본 연구는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유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종 73개의 의미개념, 30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을 통해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가족의 영향’과 ‘사회·문화적 가치 체계의 영향’, 맥락적 조건은 ‘한국과 중국의 정치·사회·문화의 영향’과 ‘코로나19의 영향’, 중심현상은 ‘진로 결정 과정의 혼란과 불확실성’, 중재적 조건은 ‘주변 자원 및 정보 활용’과 ‘심리적·현실적 제약 인식’,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자기 주도적 대응’과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태도’이며, 결과는 ‘자신의 욕구에 따른 진로 결정(주도형)’, ‘부모의 뜻에 따른 진로 결정(순응형)’, ‘진로 결정 유예(유예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정분석 결과, 진로 결정 과정은 ‘순응 단계’, ‘갈등 단계’, ‘내적욕구 활성화 단계’, ‘주도적 대응 단계’, ‘진로 결정 단계’의 5단계로 나타났으며, 핵심범주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뚫고 자기 주도적 진로 방향 설정하기’로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 논의와 학술적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진로 결정 과정, 중국 유학생, 근거이론, 질적연구

[†] 교신저자 : 하정희,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2613, E-mail: hajung366@hanyang.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은 대학 혁신과 경제 성장, 고등교육의 세계화, 출생률 저하로 인한 국내 대학 신입생 수 감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손현경, 2024). 최근에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교육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수를 3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정책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단순한 유치를 넘어 졸업 이후 국내 정주(定居)로 연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2024; 황갑선, 2025). 유학생이 단순한 교육 수요자를 넘어 노동력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1999년 3,418명에서 2010년 60,000명으로, 2024년에는 145,778명으로, 25년 만에 약 42.7배 늘었다. 2024년 기준 중국 유학생 수는 62,623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43.0%를 차지하며 국가별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교육통계서비스, 2024). 중국 유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전체 유학생 중 비율은 2004년 59.34%에서 2009년 87.02%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전년보다 360명 감소하여 68,954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중국 유학생 감소의 주된 요인은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구조적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유대근, 2014). 전체 유학생의 43.0%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집단이 진로 문제로 한국 사회 정착을 포기하고 이탈하는 현상은 한국의 고등교육에 투입된 자원이 실질적인 인적자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손윤희 외, 2025)에 따르면 재한 중국 유학생 중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

는 비율은 2023년 기준 15.8%로 베트남(44.5%)이나 몽골(35.9%) 등 타 국가 유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귀국 이유로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9.7%에서 2023년 1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진로 장벽이 점점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학생 유치와 진로 지원, 졸업 후 정착까지 이어지려면 그에 맞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국 유학생 감소에 대응하려면 이들의 진로 결정 과정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졸업 시기에 직면하는 진로 문제는 유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과업으로 다가온다. 진로는 좁은 의미에서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직업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모든 일과 관련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박정란,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 결정은 개인이 자신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조직하고 다양한 상황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며 여러 대안을 탐색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Harren, 1979). 특히 진로 선택이 특정 직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진로 결정은 그러한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강조한다(김봉환 외, 2017). 생애적 관점에서 진로 결정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Super, 1980), 개인이 삶 전반에 걸쳐 내리는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로 여가생활,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Gati & Asher, 2001). 이러한 진로 결정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 가족관계,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Sampson et al., 1992). 따라서 소수 집단의 진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적 특성과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Lee et al., 2017; Leong & Gupta, 2008).

진로 결정 과정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 환경적 특성 변인에 초점을 맞춰왔다. 먼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 진로 장벽,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완벽주의, 심리적 안녕감 등이 주요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김민정, 김봉환, 2014; 노윤신, 2024; 유숙경 외, 2019; 이재은, 2022; 정영주, 2021; 최주영, 정주리, 2020). 아울러 환경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진로 기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망, 전공만족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김경은, 라영안, 2020; 김성남, 정철영, 2005; 김하나, 이수진, 2019; 김희수, 문승태, 2011; 민지애, 유금란, 2015; 전형근, 김태형, 2021).

나아가 유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진로 문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김세연 외, 2024; 정혜선, 2016; 하정희, 2008), 이는 학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진로 정체성(김수연, 2010), 전공 적성과 진로 부합도(백은주 외, 2015)와 같은 변인들이 대학생의 학업 중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진로 문제가 학업 지속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오인수(2017) 역시 진로 장벽이 중국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진로 선택과 결정 과정에 대한 심층 탐구를 제안하였다. 하정희(2008)의 연구 역시 중국 유학생들이 취업 관련 진로 결정 과정에서 큰 압박과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진로 불확실성, 비자 및 경제적 제약, 취업시장 정보 부족, 사회적 지원 결핍 등이 심리적 스트레스

를 가중시켜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세연 외, 2024; 정혜선, 2016). 유학생의 진로 문제는 학업과 적응, 정신건강 모두와 관련이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정체성 형성, 심리적 독립, 사회적 관계 확립, 진로 선택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다(임은미, 2011; Lapsley et al., 1989). 그러나 유학생들은 이러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언어 장벽, 학업 스트레스, 차별, 지지 자원의 부족 등 해외 생활에서 비롯된 어려움까지 겪기 때문에 그만큼 이들의 진로 결정 과정은 여러 요인이 얹힌 복잡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오혜영, 이윤희, 2018).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변인 간 관계 분석에 치우쳐 있어 유학생의 진로 경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첫째, 연구 주제와 이론적 접근이 편중되어 있다. 기존의 유학생 관련 연구들은 주로 문화 및 대학 생활 적응(유지현, 김혜영, 2022; 이채식, 2012; 하정희, 2008), 적응 스트레스(이안나, 박경아, 2019; 이예슬, 김은하, 2015; 정은지, 김근향, 2021; 진미경, 조유진, 2011), 차별 경험(강진구, 2022; 김연희, 이교일, 2021; 정림, 최원규, 2023) 등 유학 초기 적응과 스트레스 요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학생의 진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조효진, 김민정, 2024). 또한 전통적 진로 이론들은 주로 개인의 능력, 흥미, 적성 등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 결정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Hartung, 2002; Young et al., 2007).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 사회문화적 맥락을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Lee et al., 2017; Leong & Gupta, 2008). 특히 대부분의 이론이 서구의 개

인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거나(권란, 하정희, 2023; Brown, 2000; Mau, 2004; Richardson, 2012) 경제적 제약 및 차별 등을 경험하는 소수 집단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Arthur, 2006; Richardson, 2012).

둘째, 방법론적 한계와 기존 질적연구의 제한점이다. 진로 결정 과정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이므로 이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최진영, 이광호, 2012; 황매향 외, 2013). 기존 연구는 주로 양적 접근에 의존하고 있어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치우쳐 있으며(공혜진, 2020; 남순현, 2021; 서몽선, 2020; 최송화 외, 2011), 재한 중국 유학생이 겪는 특수한 문화적 맥락과 구조적 환경 속에서 이 요인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소수의 질적연구도 있었으나 한계가 존재한다. 서영주(2021)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에 주목하였으나 그 외의 요인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채향화와 김창대(2022)는 언어·문화적 장벽이 낮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 유첸과 김미영(2024)의 연구 역시 한류에 관심이 높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진로 갈등이나 부정적 경험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는 제약이 있다.

셋째, 연구 대상의 시기적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특히 학부 고학년의 경우 졸업이 임박함에 따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고 실제적 선택이 요구되지만, 이들의 진로 결정 경험을 전반적이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다(고영희, 박윤희, 2018; 안성식, 박인숙, 2024; 주영주, 한상운,

2015).

기존 연구들이 특정 집단이나 긍정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 보니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을 다각도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 4년제 대학 학부 4학년 한족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이후의 진로 결정 과정과 영향 요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모집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은 단순한 현상 기술을 넘어 과정과 맥락 속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Corbin & Strauss, 2014). 근거이론을 통해 진로 결정 과정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과 그 상호작용을 구조적·문화적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진로이론 확장과 유학생 진로 연구와 다문화 진로상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진로 결정은 어떠한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였는가?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 소재 4년제 대학에서 4학년에 재학 중인 한족 유학생 가운데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로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는 총

표 1. 연구 참여자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전공	희망 진로
1	여	25	사회과학계열	한국 진학
2	여	22	인문계열	제3국 진학
3	여	22	사회과학계열	한국 취업
4	여	24	사회과학계열	귀국 진학
5	남	24	인문계열	한국 진학
6	여	23	사회과학계열	귀국 취업
7	여	22	사회과학계열	제3국 진학
8	여	22	사회과학계열	제3국 진학
9	여	21	사회과학계열	제3국 진학
10	여	23	사회과학계열	귀국 취업
11	남	23	자연과학계열	귀국 취업
12	여	22	사회과학계열	제3국 진학
13	여	23	인문계열	한국 진학
14	남	24	사회과학계열	한국 취업
15	여	23	사회과학계열	귀국 취업

1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1세에서 25세 사이로 모두 미혼이었다. 또한 이들은 서울 소재 5개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공 계열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귀국 진학, 귀국 취업, 한국 진학, 한국 취업, 제3국 진학 등 다섯 가지 진로 선택 유형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표집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과정 및 자료 분석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과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활용하였다. 양적 연구와 달리 근거이론에서는 참여자 선정이 끝나기 전부터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함께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근거로 연구자는 이론적 관련성이 있는 유사하거나 대조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 수집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Corbin & Strauss, 2014). 자료 수집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참여자 대부분은 2020년 전후에 입학한 세대로 대학 생활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보냈다는 점에서 시기적 특수성을 갖는다. 모든 심층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거리와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으로

진행하였다. 면담과 자료 분석을 병행하면서 분석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질문을 이후 면담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범주나 개념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거나 도출된 범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즉 자료가 포화(saturation)에 이를 때까지 자료 수집을 지속하였다(Corbin & Strauss, 2014).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재한 중국 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여러 대학교 중국 유학생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게시하여 모집하였다. 면담은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연구자 2명이 중국어로 진행하였으며 면담 종료 후 녹음파일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번역 과정에서는 원문의 의미가 최대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고 번역이 완료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개방 코딩 결과를 새로 수집된 면담 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새로운 개념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는 시점에서 자료가 이론적으로 포화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자 모집을 종료하였다. 모든 심층 면담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실시하였다.

1차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방법을 담은 연구 설명문, 참여 동의서, 그리고 기본 인구 사회학적 질문지가 포함된 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후 각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해 연구 목적과 절차, 면담 녹음 동의 여부, 참여 보상 지급 방법과 시기, 추가 면담 가능성, 연구 참여 철회 권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뒤 서면 동의를 확보하였다. 또한 면담 전에는 사전 질문지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참여자가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담의 질과 원활

한 진행을 준비하였다. 면담은 회당 약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 하에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1차 면담 분석 과정에서 내용의 구체화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2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을 검토한 뒤 반구조화 질문지를 만들었다. 초안 질문지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2명을 대상으로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받은 피드백과 상담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거쳐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반구조화 질문지는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한국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가이다. 구체적인 길라잡이 질문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면담은 질문지를 기본 틀로 하되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을 덧붙이거나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하였다. 면담이 모두 끝난 뒤에는 전사 자료를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게 하였다(member check). 이 과정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면담 자료는 Corbin과 Strauss(2014)의 근거이론 절차에 따라 개방 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 순으로 분석하였다. 개방 코딩 단계에서 연구자 2인은 각 사례를 꼼꼼히 읽으며 개념을 추출하고 온라인 회의(Zoom)를 통해 논의한 뒤 확정하는 절차를 전체 사례에 반복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를 정리해 나갔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추출된 범주 중 핵심이 되는 중심 현상을 축으로 잡아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고 진

표 2. 반구조화 질문지

질문주제	길라잡이 질문
들어가는 질문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나요?
한국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 졸업이 다가오는데 진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당신의 진로 고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 한국에서 학업 이외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아르바이트, 인턴십, 창업 경험 등) -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활동인가요?
한국에서 유학생 생활을 마무리하고 진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 현재 진로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도움이 되었던 경험(환경, 사람, 사건, 우연한 기회 등)들은 무엇이었나요? - 현재 진로 방향 결정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부모님은 당신의 진로에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 진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향후 더욱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무리 질문	현재 진로 방향 결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로 결정 과정에 대한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전체 분석 결과를 통합해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완성하였다.

연구자 준비도

본 연구의 연구팀은 총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상담 전공 교수 1인, 해당 학과 상담 전공 박사 수료생 1인, 그리고 박사 졸업생 1인으로 이루어졌다. 책임 연구자는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각각 질적연구 방법론 강의를 이수하였으며 다수의 대학 상담센터에서 중국 유학생 전담 상담자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유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관련 고민과 심리적

문제를 상담한 경험이 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질적연구 방법론 강의 및 관련 워크숍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질적연구를 통해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2회 게재한 바 있다. 해당 연구자는 대학 상담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중국 유학생의 다양한 진로 문제를 꾸준히 다룬 경험을 축적하였다. 위의 두 연구자는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여 중국어로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교신저자는 상담 전공 교수로 상담전문가 1급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질적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지도한 경험이 있다. 재한 중국 유학생의 적응, 자살 위기 개입, 완벽주의, 심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연구를 이어왔다.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참

여자 선정부터 면담까지 전 과정에서 참여자들과 비교적 단기간에 라포를 형성하고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연구 설계 단계에서 근거이론 방법론 관련 서적과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수행 중에는 연구자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자료 수집과 분석에 개입할 가능성을 꾸준히 점검하고 상담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제안한 질적연구의 신뢰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기준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Credibility),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 등 네 가지이며, Lincoln과 Guba(1985)는 이를 기존의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 신뢰도(reliability), 객관성(objectivity)와 동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신뢰성(Credibility)은 연구 결과가 연구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을 통해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결과를 공유하고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해석의 정확성을 참여자에게 검증받아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를 실시하여 다수의 질적연구 경험을 가진 동료 연구자에게 분석 내용을 점검받아 본 연구의 연구자들의 주관적 해석이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은 정확한 일반화보다는 연구 결과가 다른 맥락이나 집단에도 적용 가능한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적용하여 이론적 요구에 맞는 참여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험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맥락적 다양성을 고려한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 결과의 전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의존성(Dependability)은 연구 과정이 일관되고 추적 가능하여 동일한 자료와 절차를 적용했을 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감사 추적(Audit Trail)을 통해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해석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여 다른 연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넷째, 확증성(Confirmability)은 연구자가 자료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관적 편향을 줄이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 연구 과정 전반을 감사 추적으로 문서화하고 주기적으로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았다. 연구자 2인은 연구 중 느낀 생각과 감정, 동기를 서로 나누며 자기성찰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편향을 점검하고 객관성을 지키려 하였다.

결 과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을 개방 코딩과 축코딩 절차를 거쳐 패러다임 모형으로 정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 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선택 코딩 과정을 통해 진로 결정 과정의 핵심 범주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 모형을 구성하였다(Corbin &

Strauss, 2014).

개방코딩과 축코딩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을 살펴 보기 위해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유사성에 따라 묶는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73개의 개념, 30개의 하위범주, 12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그림 1과 표 3부터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특정 현상이 발생하거나 전개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사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무엇이 그 현상을 발생하게 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Corbin & Strauss, 2014). 본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가족의 영향’,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의 영향’이 인과적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우선, ‘가족의 영향’은 진로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참여자들은 ‘가족 내 전통적 규범의 영향’(예, 나이대별 발달과업, 효도)을 받고 있었으며 동시에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가족의 통제와 개입’(예, 부모의 주도권, ‘체제 내’ 직업¹⁾ 선호)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가족의 지지와 자원 제공’은 이들이 유학이나 진학을 선택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

또한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의 영향’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참여자들은 ‘학력 및 학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예, 중국 내 영미권

학위 선호, 학부 졸업의 한계)을 바탕으로 진로를 판단하고 있었으며 ‘해외 교육시스템에 대한 선호’ 역시 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이 이번에 정책이 새로 나오면서 비영어권 나라 유학생을 선호하지 않는다. 차라리 중국 내 211, 985²⁾ 이하의 학생을 받을지언정 한국에 유학한 유학생은 받지 않으려는 거 같다고 하더라. (참여자 1)

부모님은 내가 ‘체제 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길 바라신다. 이번에 은행 (취업을 위한) 시험을 봤다. 엄마가 보라고 하셨다. (참여자 9)

맥락적 조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및 가족적 배경이나 맥락을 의미한다(Corbin & Strauss, 2014). ‘한국과 중국의 정치·사회·문화의 영향’과 ‘코로나19의 영향’이 맥락적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사회에서 여전히 통용되는 ‘관시’ 즉 인맥 중심의 취업 관행은 청년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중국의 정치·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고 싶어 했다. 중국 정부의 취업 정책 변화도 귀국 여부와 진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 유

1) 체제 내 직업: 국가기관, 국유기업,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은행원 등과 같이 국가의 직간접적인 관리를 받는 직종을 의미

2) 211, 985: 중국 정부가 1990년대에 선정한 중점 대학(211 공정)으로 115개 대학이 포함됨. 그중 39개의 세계적 수준의 일류 대학(985 공정)을 지칭함. 중국 취업시장에서 학력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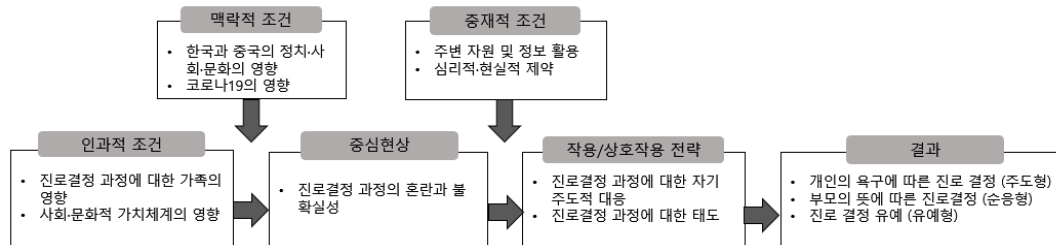


그림 1. 재한 중국 유학생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표 3.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경험에 대한 인과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범주
(조)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나이대별 발달과업(결혼, 취업 등)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기를 요구함 - 부모는 자녀가 곁에서 효도를 다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귀국하기를 바람	가족 내 전통적 규범의 영향	
- 현 중국 기업에서의 높은 실업률, 구조조정 등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체제 내’ 직업을 가지기를 바람 - 빠르게 변하는 중국 내 정책 때문에 해외학위를 조속히 취득하고 귀국하여 취직하기를 바람 - 진로 결정 과정에서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 - 진로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요구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낌 -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함/행사함	가족의 통제와 개입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가족의 영향
- 진로에 대한 자녀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 부모의 지지와 경제적 지원으로 제3국 유학이 가능함	가족의 지지와 자원 제공	
- 대학원 졸업이 학부 졸업보다 중국 내 취업 시장에서 큰 이점을 주지 못함 - 중국에서 한국 학력보다 영미권 나라의 학력이 더 인정받음	학력 및 학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의 영향
- 한국보다 영미권 나라에서의 대학원 학위과정이 짧아서 선호함 - 성적만이 아닌 사람을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해외 교육시스템이 마음에 듭	해외 교육시스템에 대한 선호	

학생들과 문화 경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맥락적 조건이었다. 참여자들은 한국 생활을 통해 결혼 등 나이대별 발달과업에 대한 기준이 느슨해지는 등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는 진로 선택의 폭과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로 놓쳤던 캠퍼스 경험을 대학원 진학으로 채우려는 심리도 진로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표 4.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경험에 대한 맥락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범주
• 판시를 통한 중국의 취업 방식에 심리적 박탈감을 느낌	판시 중심의 취업 관행에 대한 불공정 인식	한국과 중국의 정치·사회·문화의 영향
• 답답한 중국 내 취업 및 정치적 환경보다 자유로운 영미권 국가를 선호함 • 코로나 시기 중국의 대처방식을 보고 회의를 느껴 더욱 해외로 유학 가고 싶어짐	중국 내 정치·사회적 환경을 벗어나고자 함	
• ‘잉쩌성’에게만 주어지는 중국 내 취업 혜택에서 배제될까 걱정함 • 중국 정책의 변화로 비영미권 유학생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짐	중국 취업 정책의 영향	
•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해외 유학 준비에 긍정적 경험으로 작용함 • 한국 유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나이대별 발달과업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한국 유학생들과 문화 경험의 영향	
• 코로나 이후에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 • 대학원 진학을 통해 코로나 시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학교생활을 다시 누리고 싶음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사회 경험 박탈에 대한 보상 욕구	코로나19의 영향

표 5.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경험에 대한 중심현상

개념	하위범주	범주
• 아시아를 벗어나 영미권 국가 유학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음 • 한국이 중국보다 다양한 면(발전가능성, 경제적 수입, 복지)에서 좋아서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음	진로 선택에 대한 개인의 욕구	진로 결정 과정의 혼란과 불확실성
• 진로에 있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막막함 • 향후 한국에 체류할지 귀국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함 • 계획한 진로에서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렵고 불안함	진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개인적으로 중국의 환경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보니 중국이 확실히 강압적이고 숨 막히는 면이 있다. (참여자 6)

‘잉쩌성’은 그들끼리 경쟁하는데 아닐

표 6.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경험에 대한 중재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범주
- 자신이 원하는 진로 계획을 이미 해내고 있는 지인의 영향을 받아 자신감을 얻음 - 진로 선택에서 부모의 직업을 모델로 삼음	주변인을 진로 모델로 삼음	
- 교수의 관심과 격려로 인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할 용기를 얻음 - 실습하는 곳의 상사에게 진로를 자문하면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됨	주변인의 긍정적 영향	주변 자원 및 정보 활용
- 주로 중국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로 관련 정보를 획득함 - 학과에서 해외 유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음 - 수업과 다양한 진로탐색 경험을 통해 원하는 진로와 분야가 점점 더 명확해짐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진로 정보 획득	
-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느낌 - 원하는 걸 꼭 이뤄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로 인한 부정 정서를 많이 경험함 - 좌절을 극복한 경험이 적어서 고감내력이 약하다고 느낌	심리적 제약 요인	
- 여유롭지 않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해외로 유학을 가더라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함 - 주거비 부담으로 부모와 동거해야 해서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음	경제적 제약 요인	심리적·현실적 제약 인식
- 업무 및 실습 경험의 부족 - 영어성적이 부족해서 해외 대학원 진학에 어려움이 큼 -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한국에서 취직할 용기가 나지 않음	언어적 한계와 경험의 부족	

경우는 일한 지 오래된 직장인들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나보다 경험이 많기에 지원을 해도 뽑히지 않을 것이다. (참여자 5)

- 3) 잉쥬생(应届生): 중국의 당해 연도 졸업생을 의미하나, 정책적으로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포함하기도 함. 공무원, 국유기업, 대기업 채용 시 별도의 자격이나 혜택이 주어져 유학생들이 귀국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Corbin & Strauss, 2014). 본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 과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중심현상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인과적 조건(가족의 영향, 사회적 가치)과 맥락적 조건(양국의 환경, 코로나19) 속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핵심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혼란과 불확실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진로 선택에 대한 개인의 욕

표 7.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경험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

개념	하위범주	범주
•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 계획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부모를 설득함 •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통해 진로 결정의 주도권을 쟁취하고자 함 • 부모의 반대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제로 삼아 더 도전함	부모 설득 및 자율성 확보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자기 주도적 대응
• 취업이나 해외 유학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한국 유학 경험을 통해 내면의 성장과 대처 능력이 향상됨 •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자신감과 도전할 용기가 생김	진로를 위한 역량 개발	
• 진로 준비 과정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심리상담을 이용함 • 진로준비를 위해 교수 및 취업 준비 중인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 • 이미 취직한 친구들로부터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음	관계 자원과 정보 활용	
• 진로 준비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바라봄 •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여러 대안을 마련해 감 • 기대한 만큼 해내지 못할까 봐 걱정되지만 어떠한 결과든 수용하려고 함	진로 결정에 대한 유연하고 긍정적인 태도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태도
• 보답을 바라시는 부모의 뜻을 자녀도 받아들임 • 진로나 결혼 등 인생 과업에서 부모의 의견을 따르려고 함	가족 가치관의 수용과 타협	
•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 선에서만 취업 시도를 하려고 함 •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경쟁이 심한 한국에서의 취업을 포기함 • 고된 직장생활로 열정과 의욕을 상실한 친구들을 보며 취업을 주저함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회피적 대처 전략	

구'이다. 참여자들은 영미권 유학, 한국 취업 등 새로운 경험과 개인의 발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진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강하게 경험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막하거나 귀국과 체류 사이에서 방황하고 계획한 진로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을 느끼는 등 복합적인 혼란 상태에 있었다. 원하는 것은 있지만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진로를 탐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이미 체험했으니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싶다. 학습 방식과 환경을

표 8.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경험에 대한 결과

개념	하위범주	범주
- 제3국 유학에 제한이 있어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함 - 학부 학위만으로 중국에서 취업과 승진에 제약이 많아 해외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결정함 - 중국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귀국해서 취업하려고 함 - 중국의 취업난 혹은 잉제성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귀국하여 취업하려 함	현실 기반의 전략적 진로 결정	자신의 욕구에 따른 진로 결정 (주도형)
-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익숙한 중국으로 돌아가서 발전하고자 함 - 한국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였지만, 중국에 있는 애인 때문에 귀국하기로 진로를 변경함 - 한국의 환경이 만족스러워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기로 선택함	친밀한 관계와 개인적 선호 기반의 진로 결정	
- 부모의 기대와 통제를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함 - 한국 유학 생활을 통해 더 이상 부모의 부속물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함	가족의 기대보다 개인의 의지가 우선된 진로 결정	
- 외동으로서 부모가 자신의 곁에 있어 주길 원해서 귀국을 선택함 - 부모의 설득 하에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귀국하여 취업하기로 함	부모의 기대와 제안에 따른 진로 결정	부모의 뜻에 따른 진로 결정 (순응형)
- 부모와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함 -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진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부모와의 의견 차이로 인한 진로 결정의 제약	진로 결정 유예(유예형)
진로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진로 결정을 못하고 있음	자기 이해 부족으로 인한 진로 결정 지연	

바뀌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경험해 보고 싶다. (참여자 9)

또 하나는 심리적 압박이다.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이 길을 내가 정하긴 했는데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만약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

가야 한다면... 이런 면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참여자 6)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조건이다(Corbin & Strauss,

2014). 본 연구에서는 ‘주변 자원 및 정보 활용’과 ‘심리적·현실적 제약 인식’이 중재적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주변 자원 및 정보 활용’은 진로 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참여자들은 지인이나 부모, 교수를 진로 모델로 삼거나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로 및 유학 정보를 모으며 결정 과정을 이어 나갔다. 반면 ‘심리적·현실적 제약 인식’은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이는 ‘심리적 제약(낮은 고통감내력), ‘경제적 제약(학비 부담) 및 ‘언어적 한계와 경험 부족’(실무 경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진로 결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전공과목이 좀 부실해서 이와 관련된 수업을 많이 찾아 들었는데 재밌고 성적도 괜찮아서 성취감이 있었다.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었고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12)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영어다. 영어 수업을 듣긴 하는데 여기서는 다 한국어로 하니까 실제로 영어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여자 8)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에 대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Corbin & Strauss, 2014). 본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 주도적 대응’과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자기 주도적 대응’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다. 이는 부모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경제적 독립을 시도하는

‘부모 설득 및 자율성 확보’ 노력, 유학/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쌓는 ‘진로를 위한 역량 개발’, 그리고 심리상담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관계 자원과 정보 활용’의 형태로 나타났다.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태도’는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취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대안을 마련하며 결과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 부모의 뜻을 따르는 가족 가치관 수용과 타협, 스트레스와 경쟁을 피하려는 회피적 대처로 나뉘었다. 이러한 전략과 태도의 차이가 결국 진로 결정 유형의 차이로 이어졌다.

엄마는 줄곧 내가 대학원에 가기를 바라시는데 일단 1년간 일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다. 만약 자리도 잡고 돈도 번다면 뭐 하러 굳이 2년씩이나 더 다니겠는가. 다니고도 똑같은 돈을 버는 거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 지금 부모님을 설득하는 중이다. (참여자 7)

나는 낙관적인 사람이라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비관하지 않는다. 어차피 돌아가서 굶지는 않을 것이고 대기업 못 찾으면 중소기업 가고. 안돼도 방법은 있을 거다. 지금은 먼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따면서 기회 있으면 지원도 해보려고 한다. (참여자 14)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들을 의미한다(Corbin & Strauss, 2014).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욕구에 따른 진로 결정’, ‘부모

의 뜻에 따른 진로 결정’, ‘진로 결정 유예’ 등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주도형으로 일부 참여자들은 ‘현실 기반’, ‘친밀한 관계와 개인적 선호 기반’ 및 ‘가족의 기대보다 개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가족의 기대보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주체적 선택을 하였다. 둘째는 순응형으로 ‘부모의 기대와 제안에 부응하거나 가족의 가치관을 수용하여 부모의 뜻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유형으로 부모의 바람이나 설득을 수용하여 진로를 결정하였다. 셋째는 유예형으로 ‘부모와의 의견 차이’나 ‘자기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진로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고 유예 상태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 진로 결정의 결과는 환경과 맥락, 가족의 영향, 개인의 욕구와 대처 방식이 맞물리면서 참여자마다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서 일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일찍부터
내 꿈을 포기하고 평생 그렇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 한다. 엄마가 계속 잔소리는
하시겠지만 설득하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참여자 11)

외동이라 부모님은 내가 곁에 남아있
기를 바라신다. 출국 전에 돌아가기로 약
속했다. 원래는 대학원에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직업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다고 하셔서. 많이 지원했는데 대부분은
은행이다. 부모님이 은행이 좋다고 하서
서... (참여자 1)

나의 부족한 점은 주관이 확고하지 않

고 쉽게 흔들리는 거다. 결정 장애가 있
다.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없다.
대학원 전공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대
학원을 졸업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지 분명한 목표도 없다. (참여자 10)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중심현상과 관련하여 시간의 역
동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용과 상호작
용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Corbin &
Strauss, 2014).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
인 ‘진로 결정 과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패
러다임 모형의 범주들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떠한 관련성을 맺으며 발전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제한 중국 유
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은 ‘순응 단계’, ‘갈등
단계’, ‘내적욕구 활성화 단계’, ‘주도적 대응
단계’, ‘진로 결정 단계’의 다섯 단계로 도출
되었으며 이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단계
는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지만 엄격히 순차적으
로만 진행되기도는 일부 겹치며 연결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과 전략이 상호
작용하여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응 단계

진로 결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순응 단
계’이다. 이는 유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
적으로 탐색하기 이전 인과적 조건에 해당하
는 ‘가족의 영향’과 ‘사회·문화적 가치체계’
를 내면화하고 수용하는 초기 상태를 의미한
다.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조)부모 세대의 전
통적 규범(예, 나이대별 발달과업, 효도)을 당
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진로 결정의 주도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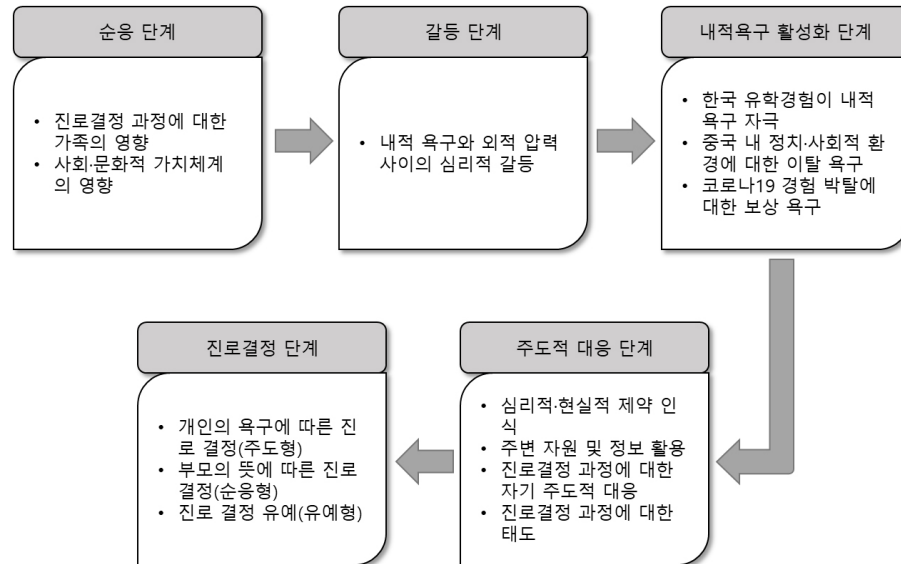


그림 2.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과정 분석

부모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학력의 가치나 영미권 학위 선호와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체계를 별다른 비판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 단계

‘순응 단계’는 ‘갈등 단계’로 이어진다. 이는 개인의 내적 욕구가 가족과 사회의 외적 압력과 충돌하면서 중심현상인 ‘진로 결정 과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아시아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개인의 욕구’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막함을 느끼거나 계획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 등 ‘진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겪으며 내적 갈등과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내적 욕구 활성화 단계

갈등 단계에서 혼란을 겪던 참여자들은 ‘내적 욕구 활성화 단계’를 거치며 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맥락적 조건들이 본격적으로 작용한다. 한국 유학 생활을 통해 결혼 등 나이대별 발달과업에 대한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새로운 진로를 시도할 용기를 얻기도 했다. ‘중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이나 ‘관시 중심 취업 관행’에 대한 회의감은 중국을 떠나고 싶다는 이탈 욕구로 이어졌고 코로나19로 농친 경험에 대한 아쉬움은 대학원 진학 등 학업 연장을 통해 이를 보상받으려는 내적 동기로 작용했다.

주도적 대응 단계

내적 욕구가 활성화되면서 참여자들은 ‘주도적 대응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단계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풀어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펼치는 단계이다. 이 과정

에는 중재적 조건이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이나 언어적 한계 같은 심리적·현실적 제약을 직시하는 한편 교수나 지인, 온라인 채널 등 주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모를 직접 설득해 자율성을 확보하거나 유학·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주변 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결과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 가족 가치관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태도,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회피적 태도가 각각 나타났다.

진로 결정 단계

이는 참여자들이 주도적 대응 단계에서 취한 전략과 태도에 따른 결과이다. 대응 전략과 태도에 따라 참여자들은 ‘개인의 욕구에 따른 진로 결정(주도형)’, ‘부모의 뜻에 따른 진로 결정(순응형)’, 또는 ‘진로 결정 유예(유예형)’라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부모 설득’과 ‘역량 개발’ 등 ‘자기 주도적 대응’에 성공하고 ‘긍정적 태도’를 견지한 참여자들은 ‘개인의 욕구에 따른 진로 결정(주도형)’에 도달했다. 반면, ‘가족 가치관의 수용과 타협’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부모의 뜻에 따른 진로 결정(순응형)’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회피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거나 ‘자기 이해 부족’ 혹은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진로 결정 유예(유예형)’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주도형·순응형·유예형의 세 유형은 중국 유학생들이 부모의 기대, 사회문화적 요인, 개인적 욕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틀로 기능한다.

선택코딩

핵심범주

근거이론에서 핵심범주는 연구 주제를 관통하는 중심 개념으로 자료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현상을 포착하여 다른 범주와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함으로써 연구 대상 현상의 본질을 설명한다(Corbin & Strauss, 2014; Lincoln & Guba, 1985). 핵심범주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뚫고 자기주도적 진로 방향 설정하기’이다. 참여자들은 가족의 영향과 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진로 결정 과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중심 경험으로 겪었으며 이 핵심범주는 그 전 과정을 관통하는 개념이었다.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은 처음의 순응 상태에서 갈등을 겪고 내적 욕구가 살아나는 과정을 밟으며 혼란을 헤쳐 나가기 위한 주도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핵심범주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 각자의 방향을 잡아가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담아낸 개념이다. 중국 유학생의 진로 과정을 이해할 때 가족 관계나 문화적 맥락뿐 아니라 이들이 겪는 내면의 혼란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주도적인 노력을 함께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상황 모형

상황 모형은 중심 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그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도식이다(Corbin & Strauss, 2014). 상황 모형(그림 3)은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을 국가, 사회, 가족과 개인 차원의 다층적 맥락 속에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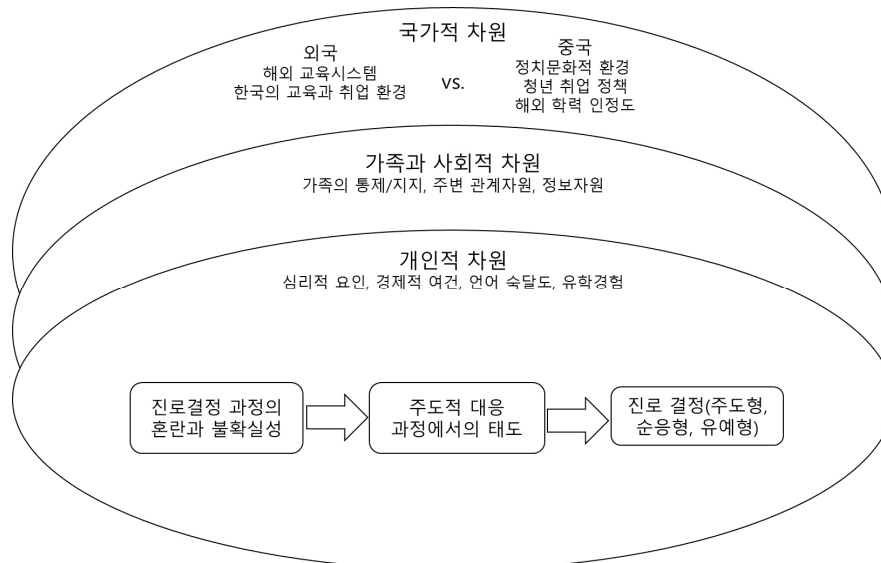


그림 3. 상황모형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치·문화적 환경, 청년 취업 정책, 해외 학력 인정 여부 등이 진로 선택의 제약과 기회를 함께 만들어냈고 해외 교육시스템과 한국의 교육·취업 환경도 중요한 변수였다. 가족과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족의 통제와 지지, 주변 관계 및 정보 자원이 진로 결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요인, 경제적 여건, 언어 능력과 유학 경험 등이 선택의 폭을 넓히거나 제한하였다.

이러한 다층적 영향 속에서 참여자들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일부는 가족 가치와 개인 목표 사이의 접점을 찾아 부모를 설득하거나 역량을 키우고 주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대응과 태도에 따라 일부 참여자는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였고(주도형), 또 다른 이들은 부모의 기대에 맞추는 방향을 택했으며(순응

형), 일부는 주체성과 가족 기대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을 이어갔다(유예형).

상황 모형은 재한 중국 유학생의 진로 결정이 단순한 부모-자녀 간 이견 조율을 넘어 국가적 조건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가족 중심 가치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맞물린 복합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는 학부 4학년 중국 유학생들의 진로 결정 과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핵심범주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뚫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방향 설정하기’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가족의 영향과 사회·문화적 가치체계 속에서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으면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주도형, 순응형, 유예형 각자의

진로를 찾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밟았다.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한 가장 큰 인과적 조건은 가족의 영향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의 통제와 개입’이다.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친척들을 포함한 가족의 기대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 때로는 진로 결정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졸업 후 바로 귀국하기를 바라고 귀국 후 ‘체제 내’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기를 바라며 결혼과 같은 발달과업을 적령기에 수행하고 부모 곁에서 효도하며 노후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기대는 귀국, 취업 영역, 발달과업 수행, 노후 부양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었고 이것이 참여자 개인의 욕구와 충돌하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된 배경이 되었다.

참여자들의 혼란과 불확실성은 가족의 영향만이 아니라 중국의 취업 정책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심화되었다. 중국의 ‘잉제성’ 정책은 졸업 직후 바로 취업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진로 탐색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판시’ 문화 즉 인맥 중심의 취업 관행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로를 개척하려는 의지에 회의감을 초래했다. 이에 더하여 중국 내에서 비영어권 학위가 낮게 평가된다는 인식은 한국 유학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혼란 속에 머물기만 하지 않았다. 분석에서 드러나듯 ‘한국 유학생 활과 문화 경험’과 ‘코로나19’가 이 단계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경직된 정치·문화적 분위기나 코로나19 당시 국가 대응에 실망한 참여자들에게서는 중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이탈 욕구가 활성화되었다. 학부

시절이 코로나19와 겹쳐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한 세대는 대학원 진학을 통해 그 경험을 채우려는 보상 심리가 진로 선택의 내적 동기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의 임금·복지·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 그리고 한국 학력이 제3국 유학 지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은 참여자들의 내적 욕구를 귀국이 아닌 한국 잔류나 제3국 유학 쪽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다만 이는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되었던 시기를 함께 경험한 특정 집단에 한정적일 수 있기에 제한 중국 유학생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내적 욕구가 활성화된 참여자들은 혼란을 풀어갈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심리적·현실적 제약을 인식하면서도 주변 자원과 정보를 동원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하였다. 부모를 직접 설득하거나 아르바이트로 경제적 독립 가능성을 보여주며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어학 능력 향상이나 교내외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노력도 기울였다. 태도면에서는 결과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 부모 뜻에 맞추는 태도 및 스트레스와 경쟁을 피하려는 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과 태도의 차이는 주도형, 순응형, 유예형의 세 가지 결과로 이어졌다. 주도형은 부모의 반대나 제약을 넘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진로를 결정한 유형으로, 한국 유학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거나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진 경험이 이 선택에 힘을 실어주었다. 순응형은 경제적 지원, 효도 규범, 불안정한 취업시장에 대한 부모의 걱정 등을 받아들이면서 선택의 폭이 줄어든 유형이다 (Gottfredson, 1996). 유예형은 자기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결정을 미룬 그룹으로 심리 자원의 부족과 갈

등 회피 성향이 진로 결정을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세 유형은 개인의 성향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 가족 구조, 국가 정책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주도형은 비교적 자율적인 부모 지원과 개인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나타났고, 순응형은 집단주의 규범과 부모 의존성에서, 유예형은 심리 자원 부족과 갈등 회피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진로 결정이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합적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담 장면에서도 유학생의 진로 결정 유형에 따라 그가 처한 조건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진로 이론은 주로 서구나 주류 문화 집단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다문화 집단인 유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이들에게 보다 적합한 실체이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유학생 진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이 일부 요인에 국한한 데 반해 본 연구는 개인, 가족 및 사회, 국가 차원의 요인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이는 진로 결정 과정이 단일 차원이 아닌 다중 차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며, 유학생 진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방현희, 이미정, 2015).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하여 면담을 중국어로 진행하였고 참여자들이 모국어로 진술하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진술은 의미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번역함으로써 원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고, 이는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Yakunina et al., 2013).

상담 실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 상담에서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핵심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진로 정보를 함께 찾아보거나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현실적 제약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혼란을 줄여주는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가족의 영향과 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주의 가치와 유교적 효 규범은 진로 결정의 강력한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진로 상담시 상담사는 개인 역량 개발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가족의 기대 수준까지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 결정 유형에 따른 맞춤형 개입이 요구된다. 주도형 학생에게는 자기주도적 전략을 지지하고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 적절하며, 순응형이나 유예형 학생에게는 자기 이해를 높이고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안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에 특화된 진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참여자들이 기존 대학 진로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유학생의 혼란과 가족 영향,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상담·집단상담·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한국 사회에서 유학생을 인적자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했듯 유학생들의 한국 체류 선택은 내적 욕구 활성화 단계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한국 경험, 특히 근무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인식에 크게 달려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이들

이 겪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 정부 부처 그리고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 취업 연계, 안정적인 정주까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손윤희 외, 2025). 실제로 현재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을 핵심 단위과제로 추진하며 상술한 생태계 구축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의 근무 환경과 문화 경험이 체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인턴십이나 직무 경험을 지원하여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진로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가족의 영향이라는 강력한 인과적 조건을 유학 중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공, 가족 방문 절차 간소화, 안정적인 생활 환경 보장 등을 뒷받침해 준다면 유학생의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이 진로를 완전히 확정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진로가 확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라는 특성상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양적 연구를 통한 요인 간 관계 검증이나 종단 연구를 통한 장기적 변화 추적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셋째, 제한 중국 유학생만을 다루었다는 점

에서 다른 문화권 유학생과의 비교 연구도 의미 있는 방향이다. 특히 가족 기대와 개인 욕구 사이의 조율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회복을 다양한 문화권 유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다면 진로 주체성이 형성되는 경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구 (2022). COVID-19 팬데믹과 초연결사회의 자화상-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차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69), 5-39.
- 고영희, 박윤희 (2018). 대학 고학년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합연구*, 16(1), 73-83.
- 공혜진 (2020).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개발 역량 분석 연구. *교양교육연구*, 14(6), 337-349.
- 교육부 (2024.3.27.). 유학생 유치에서 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에 박차.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8476>
- 교육통계서비스 (2024). 설립별 외국인 유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2&cd=6877&survSeq=2024&itemCode=01&menuId=m_010206&uppCd1=010206&uppCd2=010206&flag=A
- 권란, 하정희 (2023). 제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 및 심리치료, 35(3), 1239-1259.
- 김경은, 라영안 (2020). 대학생 진로 결정수준과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693- 714
- 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 진로 결정효능감, 합리적인사결정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7(3), 27-45.
- 김봉환, 김은희, 김효원, 문승태, 방혜진 (2017). *진로교육개론*.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성남, 정철영 (2005).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2), 139-160.
- 김세연, 김보영, 유영만 (2024). 외국인 유학생 진로관련 연구동향 분석: 주제범위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6), 835-850.
- 김수연 (2010). 대학생의 학업지속 경향성 척도 개발과 양호도 검증. *진로교육연구*, 23(3), 1-29.
- 김연희, 이교일 (2021). 유학생의 차별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대구·경북지역의 베트남 유학생과 중국 유학생의 비교. *디아스포라연구*, 15(1), 141-181.
- 김하나, 이수진 (2019). 대학생의 내재적동기,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진로교육연구*, 32(4), 165-186.
- 김희수, 문승태 (2011).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의식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2), 183-195.
- 남순현 (2021). 중국인인가? 유학생인가? 중국 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745-770.
- 노윤신 (2024). 부모의 성취압력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교양교육연구*, 18(1), 101-115.
- 민지애, 유금란 (2015).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 결정몰입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45-63.
- 박정란 (2006).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와 진로의사결정 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현희, 이미정 (2015). 한국 대학원 유학생들의 진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1(4), 309-334.
- 백은주, 남민우, 이해듬 (2015). 지방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중단 예측도구 타당화.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2), 233-260.
- 서몽선 (2020).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및 장기체류 의사 결정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주 (2021). 대학원 유학생의 학업 및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부산 P 대학 교육학과 중국 유학생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4(2), 1-24.
- 손윤희, 김지하, 백승주, 조옥경 (2025).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실태와 이슈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25-12*.
- 손현경 (2024. 9. 24.). 국내 외국인 유학생 첫 20만 넘어...“지역·분야별 유치 정책 영

- 향".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397655>
- 안성식, 박인숙 (2024).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4(1), 169-198.
- 오인수 (2017).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8(4), 209-224.
- 오혜영, 이윤희 (2018). 국내 대학 담당자들이 인식한 외국인유학생의 어려움과 심리지원 방안. *한국웰니스학회지*, 13(4), 101-121.
- 유대근 (2014. 3. 11.). '졸업해 봤자 백수' 중국 유학생 유턴.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11010007>
- 유숙경, 민경옥, 박영진 (2019). 대학생의 완벽주의, 진로의사결정, 심리적 안녕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6(6), 5-19.
- 유지현, 김혜영 (2022).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비대면 수업 만족도와 학생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62, 122-147.
- 유첸, 김미영 (2024).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취업동기 및 취업준비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33(4), 5-28.
- 이안나, 박경아 (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역량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1), 1-19.
- 이예슬, 김은하 (2015).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295-316.
- 이재은 (2022). 대학 창의성 수업의 대학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향상 효과. *창의력교육연구*, 22(3), 67-84.
- 이채식 (2012). 중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21-140.
- 임은미 (2011). 대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전형근, 김태형 (2021). 특수체육전공 대학생의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요인 분석: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행동, 진로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4), 177-187.
- 정림, 최원규 (2023).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차별경험-Colaizzi 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접근. *문화기술의 융합*, 9(1), 267-279.
- 정영주 (2021).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8(6), 1709-1721.
- 정은지, 김근향 (2021). 외국인 유학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187-194.
- 정혜선 (2016). 중국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63-72.
- 조효진, 김민정 (2024).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동기 및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교육과학연구*, 55(1), 83-103.

- 주영주, 한상운 (2015). 대졸 청년층의 학교 지원 및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 직업가치 및 외재적 직업가치가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8(2), 53-75.
- 진미경, 조유진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77-89.
- 채향화, 김창대 (2022). 재한 조선족 고학력자의 진로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 취업 결정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4), 27-48.
- 최송화, 조해연, 이동혁 (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진로장벽, 진로 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체류기간에 따른 차이 탐색.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8) 31-44.
- 최주영, 정주리 (2020).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미래교육학연구*, 33(1), 73-96.
- 최진영, 이광호 (2012).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9), 189-213.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황갑선 (2025. 1. 11.). [황갑선칼럼] 외국인 유학생 정책, “잘 가르쳐 국내 취업”으로 월드코리아.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946>
- 황매향, 조효진, 조운진, 방지원 (2013).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75-699.
- Arthur, N. (2006). Infusing culture in constructivist approaches to career counseling. In M. McMahon & W. Patton (Eds.), *Career counselling: Constructivist approaches* (pp. 57-68). Routledge.
- Brown, D. (2000). Theory and 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Are the recommendations suitable for cultural minoriti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8(4), 370-375.
- Corbin, J. M., & Strauss, A. L.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4th ed.). Sage Publications.
- Gati, I., & Asher, I. (2001). Prescreening, in-depth exploration, and choice: From decision theory to career counseling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2), 140-157.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79-232). Jossey-Bass.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Hartung, P. J. (2002). Cultural context in career theory and practice: Role salience and valu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1), 12-25.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286-294.
- Lee, B. H., Zhu, J., Diaz, D., Fischer, J., Flores, L. Y., Lin, C. L., Beilgard, J., May, S.,

- Munoz, M., Shahin, M., & Atilano, R. (2017). Racial/ethnic minority vocational research trends: An 11-year updat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5(4), 288-301.
- Leong, F. T., & Gupta, A. (2008). Theories in cross-cultural contexts. In J. Athanasou & R. Van Esbroec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areer guidance* (pp. 227-248). Springer.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Mau, W. C. J. (2004). Cultural dimensions of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3(1), 67-77.
- Richardson, M. S. (2012). A critique of career discourse practices. In P. McIlveen & D. E. Schultheiss (Eds.), *Social constructionism in vocational psychology and career development* (pp. 87-104). Sense Publishers.
- Sampson, J. P.,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1), 67-74.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Yakunina, E. S., Weigold, I. K., Weigold, A., Hercegovac, S., & Elsayed, N. (2013). International students personal and multicultural strengths: Reducing acculturative stress and promoting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2), 216-223.
- Young, R. A., Marshall, S. K., & Valach, L. (2007). Making career theories more culturally sensitiv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6(1), 4-18.

원 고 접 수 일 : 2025. 09. 08

수정원고접수일 : 2025. 11. 25

게 재 결 정 일 : 2026. 01. 05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Senior Undergraduates

LAN QUAN¹⁾ YUE GUO²⁾ Jung Hee Ha³⁾

¹⁾Hanyang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 Researcher

²⁾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 Counseling Professor

³⁾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explored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seni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Through interviews with 15 students, data analysis yielded 73 concepts, 30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The paradigm model, identified the central phenomenon as ‘Confusion and uncertainty i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This was influenced by causal conditions (family influence; social-cultural values) and contextual conditions (socio-political environments of Korea and China; COVID-19). Intervening conditions (resource utilization; psychological/realistic constraints) mediated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leading to three outcome types: ‘Proactive type’ (based on personal desires), ‘Conforming type’ (based on parents’ wishes), and ‘Deferred type’. Furthermore, the process analysis revealed a five-stage progression: ‘Conformity’, ‘Conflict’, ‘Activation of Internal Needs’, ‘Proactive Coping’ and ‘Career Decision’. The core category was derived as ‘Establishing a self-directed career path through confusion and uncertainty.’ Based on these finding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